

인기 '뚝' 떨어진 교대, "입학도 쉬워졌다"

종로학원, 6개 교대 2023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 교육부, 초등교사 채용 감축... "올해 수시 영향"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대학(교대) 입학정원 감축이 예고된 가운데, 대입에서 교대의 위상도 점차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종로학원이 홈페이지에 2023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6개 교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교대 모두 지난해 대비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 중 전주교대의 정시 합격선이 가

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수능 자체 한산점수 기준 2022학년도 790.36점에서 2023학년도 765.36점으로 무려 25점이 내려갔다.

나머지 5개 교대도 춘천교대 19.42점, 전주교대 12.388점, 부산교대 7점, 광주교대 3.5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0.45점 순으로 지난해보다 정시 합격선이 하락했다.

이는 최근 교대 선호도가 떨어지면

서 교대에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교원추락 등 요인으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의 2023학년도 대입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수시는 6.1대 1에서 5.2대 1, 정시는 2.4대 1에서 2.0대 1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전날 초등교사 신규 채용을 올해(3561명)에서 2027년 최대 27%까지 줄이겠다는 중

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공립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수가 올해 2539명에서 2027년 1976명까지 줄어든다는 예측을 근거로 들었다. 감축된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상회하는 교대 입학정원도 줄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향후 초등교사 채용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수시 경쟁률도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며 "문과 우수 인재들이 지원하는 양상도 바뀌어 올해 합격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여수소방, 상전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

여수소방서는 지난 24일 여수시 화양면 옥격리 상전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조성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주 남부소방,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특별교육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는 현장활동 중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잦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이슬기자



담양소방, 월산면 홍암마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담양소방서는 최근 담양 월산면 용암리 홍암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조성 행사를 가졌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경찰, 스쿨존 음주운전 집중 단속 실시

나주경찰서는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하곳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순천경찰, 신체위험 등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 '보이는112' 활용

순천경찰은 신고자가 신체위험 등으로 인해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보이는112' 신고를 활용할 경우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 및 정확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완도해경, 제주 무사증사범 차단 위한 여객선 불시 검문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를 위해 제주-완도 간 여객선을 대상으로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재본부

'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 징역 5~8년... 피해자들 "처벌 부족해"

70억원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8년... 검찰은 7년 구형 "삶 기반 흔든 중대 범행"... 공범 2명 각각 징역 6-5년 피해자들 "사기범 처벌 너무 관대해... 국가도 책임져야"

수도권 지역에서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 독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 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일당에게 징역 7-5년형을 구형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저질러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강동전세'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동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를,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며 더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



다. 처음으로 독립했다가 A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30대 피해자 D씨는 "검찰 구형량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도 많고, 최대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처벌받아야 한다"며 "2억5000여만원을 내고 아직 돈 한 푼을 받지 못했다. 이사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집도 처음으로 구매했던 것이다 보니 잘 몰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피해자도 있었다. 2021년 3월 서울시 동작구의 한 빌라에 2억3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다고 한 피해자의 가족 E씨는 "계약 당시 국세와 지방세납입 증명서 등을 요청

해 받았더니 '완납'이라고 표시돼 있더라"며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떼뺐다는 것인데, 정부의 서류를 믿은 동생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범들에게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중죄로 다스린다는데 고작 8년"이라며 "수많은 세월 동안 모든 돈이 들어가다 보니 전세권까지 설정해 조심한다고 했음에도 사기를 피할 수가 없었다.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고픈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일당의 추가 사실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당국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학생이 오토바이 몰다 가로등 들이받고 숨져

25일 오전 3시 53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중학생 A(13)군이 몰던 이륜차가 도로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면허 없이 다른

사람의 이륜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행택기자

뉴시스